

NEWS - 전통문화체험캠프

사단법인 한국독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박스북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전통문화체험캠프가 8월 9일(토)~10일(일), 1박 2일 동안 주)큐라이트 직원을 대상으로 숲속도서관 '토끼와 웅달샘'에서 실시되었다.

김진아 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끼와 웅달샘 주변을 구경하며 보물찾기가 시작되었고 어른들도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두막으로 내려와 수박과 전통 떡을 먹으며 각자 개성 있게 이름표와 팀명을 꾸미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나눈 후, 애기소(물놀이장)에 가서 '첨병첨병' 물장구를 하였다. 또한, 별채로 여행 온 가족의 아동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돔 형태의 지붕 구조로 된 향토 건물(본관)로 들어와 본격적으로 전통놀이를 시작하였으며 집중력과 정확성을 길러주는 비석치기부터 진행하였고 발등→무릎사이→겨드랑이→어깨→머리 순서로 난이도를 높여나갔다. 바닥에 넓은 칸과 숫자를 적어둔 곳에 오재미를 던지고 외발로 칸을 밟아가는 사방치기로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저녁식사 전, 말뚝이 밥 먹이기 놀이를 통하여 모두가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말뚝이에게 날려 보냈다.

저녁 식사 후, 조위자 부관장의 [그래, 책이야], [똥떡], [장수탕 선녀님]의 동화구연이 진행되었다. 돔 형태의 건물 안에 울림이 퍼지면서 더욱 생동감있는 구연이 진행되자 이를 경청하기 위해 모두가 집중하였다. 임애정 연구원의 인권 강의, 김진아 차장의 '마음을 나누자' 촛불담화와 촛불 릴레이로 행사의 첫째 날이 마무리 되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숲속에서 농촌체험 활동을 하였다. 토마토와 가지를 직접 수확하고 맛을 보며 토끼와 웅달샘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을 경험하였다.

체험 후, 첫째 날에 이은 전통놀이가 시작되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집중력과 침착성을 기를 수 있는 투호놀이와 고리던지기, 축을 중심으로 둥근 동체가 회전운동을 하는 팽이치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팀으로 나뉘서 대형 윷놀이를 하였고 4개의 윷이 엮어지고 젖혀지는 순간마다 온 가족이 한 목소리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박 2일 동안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전통문화체험캠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큐라이트 직원 및 가족들이 서로 단합을 이루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09월 개강과정 정기 수강신청 접수안내

· 정기수강신청기간 : 2014년 08월 01일 ~ 08월 31일

· 추가수강신청기간 : 2014년 09월 1일 ~ 09월 10일

	과정명	기수	강의수강시간	복습시간	수강료	주관	수료조건
자 격 과 정	독서지도사 통합	43	2014.09.01 ~ 2014.12.31	1년	282,000원 (침삭료 포함)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80%이상 + 과제 100% 제출시 수료 가능
	독서지도사 2급	46	2014.09.01 ~ 2014.10.31	1년	163,000원 (침삭료 포함)		
	독서지도사 1급	46	2014.09.01 ~ 2014.10.31	1년	173,000원 (침삭료 포함)		
	논술지도사	108	2014.09.01 ~ 2014.10.31	1년	178,400원 (침삭료 포함)		
	중등통합논술지도사	83	2014.09.01 ~ 2014.11.30	1년	217,400원 (침삭료 포함)	벅스북 평생교육원	
	NIE지도사	77	2014.09.01 ~ 2014.10.31	1년	208,000원 (침삭료 포함)	한국NIE협회	
	동화구연지도사	28	2014.09.01 ~ 2014.10.31	1년	208,000원 (침삭료 포함)	한국언어 능력평가원	
수 료 과 정	유아독서지도	101	2014.09.01 ~ 2014.10.31	2개월	96,200원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100% 수강 시 수료 가능 (* 독서치료과정 강의수강 80% + 과제제출 100%)
	글쓰기지도	104	2014.09.01 ~ 2014.10.31	2개월	109,200원		
	독서치료	95	2014.09.01 ~ 2014.11.30	3개월	164,700원		
	역사논술지도	83	2014.09.01 ~ 2014.11.30	3개월	183,600원	벅스북 평생교육원	
	한자교육급수지도	75	2014.09.01 ~ 2014.10.31	2개월	132,600원		
	한자공인급수지도	74	2014.09.01 ~ 2014.12.31	4개월	218,400원		
보 수 교 육	독서지도사보수교육	50	2014.09.01 ~ 2014.09.30	1개월	30,000원	(사)한국독서 문화재단	수강기간 내 강의 100% 수강 시 수료 가능 (*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 갱신)
	논술지도사 보수교육	50	2014.09.01 ~ 2014.09.30	1개월	30,000원		
	중등통합논술지도사 보수교육	35	2014.09.01 ~ 2014.09.30	1개월	30,000원	벅스북 평생교육원	
	NIE지도사 보수교육	12	2014.09.01 ~ 2014.09.30	1개월	30,000원	한국NIE협회	

참고하세요!

벅스북 과정
진행 절차

1. 지원서 작성

- 강의 수강 전 반드시 지원서 작성 (교재발송, 수료증 및 자격증 발급 근거 자료)

2. 수강진행

- 동영상 강의 : 수강기간 내 5번까지 반복 수강 가능 / 80%이상 수강(Play)시 출석인정-> '수강완료'로 처리
- 강의교재(강의안) : 강의실 내 '강의보기>교재받기'에서 PDF파일로 제공
- 과제제출 : 강의실 내 "과제방"에서 내용 확인 후 첨부 원고지 사용하여 과제 작성 후 제출

3. 과정수료

- 정기수료 : 수강기간에 맞춰 수료조건 충족 시 (수강진행 80% 이상, 과제 100% 제출 + 월 1회 수료평가 Pass)
- 조기수료 : 수료를 원하는 달에 맞춰 충족 시 (수강진행, 과제제출 100% + 월 1회 수료평가 Pass)
- * 벅스북 고객센터(1544-6164, 단축번호 2번)로 연락 / 수료과정은 수료평가 없음

4. 수료증 발급

- 수료일 익월 6일 이후 강의실 내 "수료증발급"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5. 자격검정 응시

- 수료 후 1년 안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에 응시가능 / (사)한국독서문화재단에서 자격증 발급

이달의 소식 ✨
NOTICE

한가위 맞이 만원의 행복

- 벅스북 감사 이벤트 -

- 대상 : 벅스북 자격과정 수강 신청자
- 상품 : 문화상품권 (10,000원) 선착순 20명
- 기간 : 8월 15일 ~ 31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벅스북 홈페이지(www.bugsbook.com)에서 확인하세요.



엄마는 독지사, 변신 완료!

- 우수작 / 독서지도사 1급 41기 김미선

저는 아홉살 아들 하나를 둔 늦깎이 엄마입니다. 앉고 기기 시작할 때부터 부지런히, 말 그대로 부지런히, 책을 읽어주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동시, 동화책을 하루에 스물권이나 서른권, 아이가 원하는 만큼 정말 열심히 읽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그란 눈으로 귀 기울이던 모습은 '아!! 정말 내가 아이의 좋은 엄마로구나!' 라는 행복감에 빠져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 열심히만 읽어주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집 근처 도서관에서 독서지도사 수업을 접하게 되었고, 독서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좋은 강의임에도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저는 몇 차례 도서관 강의를 듣고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그 느낌이나 감흥이 실생활에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가 커갈수록 바른 책읽기의 기반을 잡아 줘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던 저는, 보다 체계적인 공부 필요했고, 벅스북의 강의로 독서지도사 1급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강의와 자료는 그간 제가 도서관을 통해서 혹은 독학으로 해왔던 알은 지식을 일깨워주는 친절하고 실용적인 강의였습니다. 특히나 실제 교수 계획을 작성하고 아이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 내용이나 구성은 매우 유익하고 알 찬 것이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회나 반복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해를 도왔고, 출력이 가능한 자료와 꼼꼼하고 쉬운 설명들로 편안한 수강이 가능했습니다.

기초 없이 튼튼하고 멋진 빌딩을 지을 수 없듯이, 독서지도에 대한 이해 없이 읽기만을 집중했었던 엄마의 시행착오..

그 동안 아이의 책 읽는 즐거움을 방해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독서지도사 1급 과정은 그간 외계인엄마 같았을 저에게 함께 소통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엄마로의 변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와 발달 과정을 무시한 채 발문과 중심생각이나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아이를 괴롭힌건 아닌가 강의를 통해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책읽기의 기초는 바른 독서지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며, 그간 아이의 마음읽기에 소홀했던 외계인 엄마는 독서지도사 1급의 수트를 입고, 독서지도사 엄마로 변신을 도모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왜? 어째서? 하고 묻기만 하는.. 외계인 엄마가 아닙니다.. 초강력 독서지도사 엄마로 변신 중입니다.. 훗날 우리 아이가 벅스북의 후배로 독서지도사에 도전하는 그날을 기약하며 흐뭇한 상상에 빠집니다. 엄마는 독지사 변신 완료!!



<김상윤 교수님 글> - 아이가 말을 않는 이유

아이가 처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같은 형제라도 조금씩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유달리 늦게 말을 배우게 되면 걱정이 되겠지요. 보통 아이가 6개월이 지나면 웅얼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마주보며 무슨 말인지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말을 문법적인 언어를 통해 배운다기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배우는 거지요.

철학자 토마스 카알라일은 세 살이 될 때까지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세 살이 되던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요람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아픈가 봐요!” 처음 입을 열자마자 말을 유창하게 하는 자기 아이를 보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통은 왜 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는 그동안 세상의 다른 것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아이가 몰두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문득 눈앞을 펼쳐이며 날아가는 노랑나비를 동그란 눈으로 한참이나 바라보기도 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불의 피부로 느끼기도 하며 산들거리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들꽃 향기를 맡으면서 그는 이 세상만사를 바쁘게 흡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보따리 속에 아기자기 쌓아둔 체험들은 언어적 잠재력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멋진 언어로 구사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 동안 참지 못하여 어린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임의 구조를 검사하고 언어치료학원에서 쉬운 단어를 반복하는 훈련을 몇 개월 동안 한다면 그 아이는 그 소중한 몇 개월 동안의 삶의 체험들을 불안과 공포적 분위기 속에 젖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걱정스런 눈이나 조바심이 아니라 하늘처럼 믿어주는 푸근한 사랑이 아닐까요.



김상윤
고신대학교 교수
(사)한국독서문화재단 회장



<김경만 작가 수필> - 그들이 있어

가을이 저을 발목까지 왔건만 그 매력은 이 아침 머릿속까지 밀고 올라왔다. 어쩔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자연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호수를 바라보며 상념에 젖어 있다.

서류 봉투를 옆에 놓은, 조금은 이마를 드러낸 아저씨가 연신 담배 연기를 뿜는다. 바라보는 이들은 각기 다른 눈빛들이었지만 정녕 호수는 잔잔하기 그지없다. 그다지 크지 않은 호수는 너울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살을 일으킨다.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얼마 전 있었던 반가움과 그리고 감사의 시간을 생각한다.

몇 해 전부터,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에서 보내오는 초대장을 받았다. 하지만 핑계를 대며 옛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루어 왔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면서 정상인 모습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옛 벗들에게 불편한 현재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일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계속된 초대에 다음 모임에는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마음을 가진 터라, 오후 시간 느닷없는 친구 전화는 반가움이 앞섰다. 친구 여럿이 근처로 가고 있으니 나오라는 것이다.

집 근처에서 만나자는 말에는 도리가 없었다. 알았노라고 전화를 내리고는 망설임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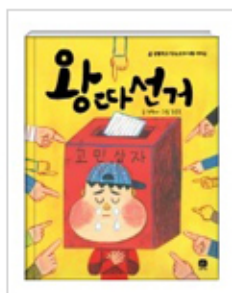
고향 이야기며 어릴 적 추억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들, 왁자지껄하게 긴 시간을 이야기꽃으로 피우며 우린 서서히 예전 동무로 바뀌었다.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려는데 한 친구가 배웅을 바란다. 애뜻한 정이 느껴왔다. 그날을, 그들을 이 호수 앞에서 떠올리니 나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가 얼굴 가득 퍼짐을 느낀다. 일어서려는데 잘 익은 탕자 빛의 노란색 원복을 입은 꼬마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조그만 돌을 주워 호수로 댕다 던진다. 잔잔하기만 하던 호수는 작은 돌의 몸부림 탓에 물무늬를 동그랗게 만든다. 정작 꼬마는 그 처짐을 보지도 못하고 무리 속으로 뛰어 간다.

그들은 내 마음속에 가득 퍼진 이 훈훈함을 알려나. 옛 친구들이 나에게 안겨 주었던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되었음을 다시 느낀다. 벗들과 교류를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실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들 눈빛 속에서 찾게 되었다. 그들이 존재함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도서소개

<이달의 신간/추천도서>



👑 신간도서 - 왕따선거

- 글 : 장한애
- 그림 : 강은옥
- 출판사 : 상상외집/128쪽/2014.07.30.출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삽니다. [생활학교 약속교과서]는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소재로 그 약속이 왜 중요한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과 결과는 어떠한지를 실감나는 동화로 엮었습니다.

리더십의 바탕은 약속을 꼭 지키는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출처 : 네이버



👑 추천도서 - 마늘먹기

- 글 : 강소천
- 그림 : 김민선
- 출판사 : 교학사/124쪽/2002.01.15출간

저학년을 위한 창작동화. 숙이 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배추를 절이십니다. 숙이네 사랑방에는 동네 애들이 모여들어 커다란 합지를 가운데 놓고 김장 마늘을 깎니다. 누가 많이 까나 깔내기를 하면 언제나 손이 큰 노마가 이깁니다. 노마는 저 혼자만 늘 이기는 게 재미가 없으니, 이번엔 마늘을 제일 많이 먹는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마늘먹기>를 비롯하여 <영식이의 영식> 등 7편을 수록했다.

출처 : 네이버

* 빅스북에서는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해 회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빅스북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